

'30대 대도' 박민우... "나 잡아봐라"

18 도루 1위, 시즌 60개 페이스 33살에도 번개돌이 무적 질주 도루 타이밍 포착 동물적 감각 NC '발 야구' 선봉장으로 활약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는 이호준 감독이 부임한 지난해부터 '뛰는 야구'를 앞세우고 있다.

NC는 지난해 창단 후 두 번째로 팀 도루 1위에 올랐고, 올해도 압도적인 팀 도루 선수를 달리고 있다.

공룡군단은 올 시즌 43경기에서 57개의 도루를 성공했다.

2위 두산 베어스(44개)보다 13개 많고, 최하위인 키움 히어로즈(13개)와 비교하

면 4배 이상 많이 뛰었다. NC의 '발 야구'를 이끄는 중심엔 베테랑 내야수 박민우가 있다.

박민우는 올 시즌 18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2위 박찬호(13개·두산 베어스)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KBO리그 최다 도루 부문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다.

경기당 0.44개의 도루를 기록 중인 박민우는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시즌 60도루 돌파도 가능하다.

NC 구단 역사상 한 시즌 60도루를 기록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박민우의 기록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3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여전히 정상급 주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2월생인 박민우는 20대 시절인 2014년 50개, 2015년 46개의 도루를 성공했으나 이후에는 한 시즌 40도루를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2024시즌 32도루를 성공하며

다시 기동력을 끌어올린 박민우는 지난해 28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올해엔 더욱 빠른 페이스로 도루를 쌓고 있다.

그는 2013년 김종호(현 NC 코치) 이후 13년 만이자 구단 역사상 두 번째 도루왕까지 정조준한다.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만난 박민우는 "사실 뛰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동안 팀 타선이 좋아서 자제했다"며 "주력으로도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뛰려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40도루"라고 밝혔다.

박민우의 강점은 단순히 스피드만은 아니다. 영리한 박민우는 상대 투수의 미세한 투구 습관과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 도루 타이밍을 영리하게 포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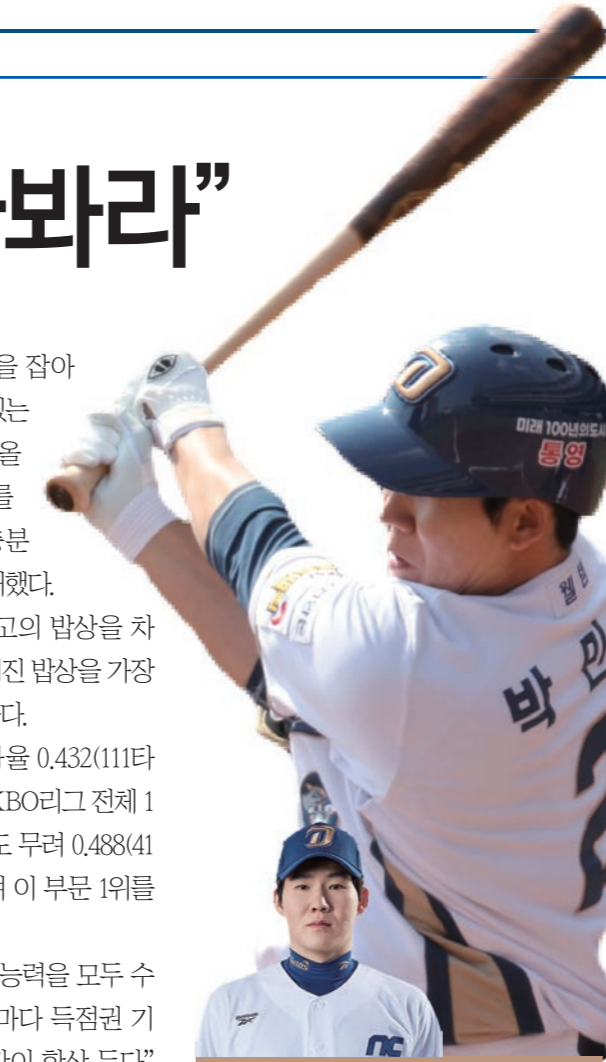
NC의 유일한 도루왕 출신인 김종호 코치는 "(박민우는) 특별히 조언하지 않아

도 스스로 도루 타이밍을 잡아 단독 도루를 성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 40개 이상의 도루를 성공하면서 도루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루 1위 박민우는 최고의 밥상을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려진 밥상을 가장 잘 먹는 선수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득점권 타율 0.432(111타수 48안타)를 기록하며 KBO리그 전체 1위에 올랐고, 올 시즌에도 무려 0.488(41타수 20안타)을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테이블 세터와 해결사 능력을 모두 수행하는 박민우는 "경기마다 득점권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며 "압박감과 부담감보다 자신감을 갖고 타석에 서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박민우 (NC 다이노스·내야수·No.2) | | | |
|------------------------|----|----|----|
| 전체 순위 | | | |
| 타율 | 홈런 | 안타 | 타점 |
| 0.315 | 1 | 46 | 28 |

글·사진=연합뉴스

호날두, 또 월드컵 뛴다 6회 연속 출전 역대 최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살나스르)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되며 6회 연속 월드컵 출전을 눈앞에 두게 됐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은 20일(한국 시간) 포르투갈 오에라스의 시다드 두 푸테발에서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와 맞붙는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호날두다. 포르투갈 대표팀 역대 A매치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226경기 143골) 기록을 모두 보유한 호날두는 이번 발탁으로 남자 축구 선수로는 역대 최다인 월드컵 6회 출전의 기록을 세울 기회를 잡았다.

2026년 독일 대회(6경기·1골)를 통해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 호날두는 2010년 남아공 대회(4경기·1골), 2014년 브라질 대회(3경기·1골), 2018 러시아 대회(4경기·4골), 2022년 카타르 대회(5경기·1골)까지 5회 연속 출전에 5개 대회 연속 득점(22경기 8골)의 대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5개 대회에 출전해 실제 경기에 뛴 선수는 호날두,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안드레스 과르다도, 안토니오 카르발, 라파엘 마르케스(이상 멕시코), 로타어 마테우스(독일) 등 6명뿐이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호날두를 비롯해 중앙 펠릭스(알나스르), 페드루 네투(첼시), 곤살루 하무스(파리 생제르맹),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유), 주앙 네베스, 비타냐(이상 PSG) 등 스타플레이어들을 대거 소집해 우승의 꿈을 노리고 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번에 선택받은 선수들은 엄중하고 정직한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함께 했던 모든 선수가 대표팀의 일원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 소속으로 6번째 월드컵에 나선다. AP=연합뉴스

다승왕 경쟁, 절대 강자가 없네

4명이 5승씩 공동 1위 대열에 작년 폰세 같은 지존 투수 실종 2점대 평균자책점은 올러 뿐 톨허스트·김건우·보של리 3~4점

2026년 프로야구에는 압도적인 에이스가 없다. 19일 현재 4명의 투수가 5승을 거둬 다승 공동 1위 그룹을 형성했다.

앤더스 톨허스트(LG 트윈스), 애덤 윌러(KIA 타이거즈), 김건우(SSG 랜더스), 케일럽 보של리(kt wiz)가 5승씩 올렸다.

톨허스트와 보של리는 19일 각각 KIA, 삼성 라이온즈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승수 추가를 노렸으나 무위에 그쳤다. 톨허스트는 빠른 볼로 타자의 헬멧을 맞혀 공 10개만 던지고 헤드샷으로 자동 퇴장당했고, 보של리는 안타 10개를 얻어 맞고 패전 투수가 됐다.

톨허스트와 맞붙은 올리는 대포를 양산한 타선 덕분에 손쉽게 5승째를 신고하고 다승 공동 1위 대열에 가세했다.

지난해 비슷한 경기를 치른 이만택 박



앤더스 톨허스트 (LG 트윈스 투수 No.30)

| 전체 순위 | | | |
|-------|----|----|----|
| 평균자책 | 승수 | 이닝 | 삼진 |
| 3.72 | 5 | 46 | 37 |



김건우 (SSG 랜더스 투수 No.39)

| 전체 순위 | | | |
|-------|----|----|----|
| 평균자책 | 승수 | 이닝 | 삼진 |
| 4.11 | 5 | 46 | 35 |



케일럽 보של리 (kt wiz 투수 No.36)

| 전체 순위 | | | |
|-------|----|--------|----|
| 평균자책 | 승수 | 이닝 | 삼진 |
| 3.99 | 5 | 49 2/3 | 43 |

세움(롯데 자이언츠·8승), 임찬규(LG)·코디 폰세(한화 이글스·이상 7승)가 지금보다 많은 승수로 다승 경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수 4관왕을 차지한 폰세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떠난 올해엔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가 사라졌다.

5승을 거둔 투수 중에서도 올러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 일뿐 세 투수는 3~4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위압감이 덜하다.

KBO리그 외국인 경력직은 한국에서

오래 뛰어 구종 등을 타자들에게 읽혀 고전하고, 기량이 고만고만한 신입직은 여전히 적응하기에도 버겁다.

위력적인 투수로 손에 꼽을 정도인 데다가 외국인 투수 2명을 제대로 가동하는 팀도 적다.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 횟수 1위(9회), 평균자책점 2위(2.33)를 달리는 믿음직한 '이닝이터' 아리엘 후라도(삼성)는 승리와 인연은 갖지 못해 2승(1패)에 그쳤다.

kt(보של리와 맷 사우어), 삼성(후라도와 잭 오러클린), KIA(윌러와 제임스 네일), 롯데 자이언츠(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러미 비슬리) 네 팀의 외국인 투수 두 오만이 시즌 시작부터 로테이션을 지켰다. 하지만 외국인 투수가 내야 할 시너지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다른 팀 외국인 투수는 부상과 부진 등으로 짝 잃은 기러기 신세였다가 최근에 야동반자를 찾았다. 올해 다승왕 경쟁 레이스에서 윈손 투

수들의 약진이 불만이다.

다승 공동 1위 그룹에서 유일한 좌완으로 김건우가 선전 중이고, 류현진과 대만 출신 아시아 쿼터 왕엔청(이상 한화 이글스), 구창모(NC 다이노스), 오원석(kt)이 4승씩 올려 1위 그룹을 바짝 쫓는다. 특히 2022년 11승을 거둔 이래 4년 만에 가장 많은 승수를 쌓은 구창모는 지난 16일 키움을 상대로 7이닝 1실점 역투로 승리를 따낸 뒤 구단을 통해 "이번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 플러스(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해 무척 기쁘다"며 구위 회복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국 야구의 차세대 좌완 재목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구창모는 2020년 왼쪽 척골(팔꿈치 아래뼈) 수술 후 2023년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 근육, 왼쪽 전완부 척골을 차례대로 다쳐 잦은 부상에 신음했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은 올해 국내 투수 중 유일하게 개막전 선발로 등판했고 이번에 2023년 4월 이래 1천127일 만에 퀄리티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며 정상으로 향해 쟁쟁함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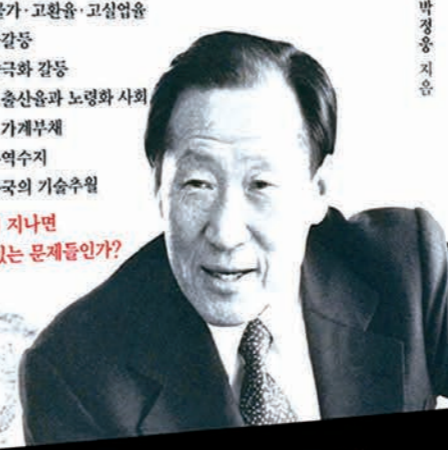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 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인 가계부채
- 위협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수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박정용 지음

그의 재능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혹독한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물결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던진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평생의 영원 동료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열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세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싶었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청했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0면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